

#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자아탄력성,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Giver, Taker, Matcher를 중심으로

한수정<sup>1</sup>, 김혜원<sup>2\*</sup>

<sup>1</sup>건양대학교 간호학과, <sup>2</sup>서울여자간호대학교

## The Relationship of the Subjective Happiness, Ego-resilience and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 Focusing on the Giver, Taker, Matcher

Su-Jeong Han<sup>1</sup>, Hye-Won Kim<sup>2\*</sup>

<sup>1</sup>Department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sup>2</sup>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Giver, Taker, Matcher 유형을 확인하고 주관적 행복감, 자아탄력성,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전체 대상자를 Giver, Taker, Matcher 유형으로 구분한 결과, Giver는 16.9%, Taker는 43.0%, Matcher는 40.1%로 Taker 유형이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은 평균 16.9점이었고, 자아탄력성은 평균 94.1점, 학업성취도는 평균 3.3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중 Giver 유형은 학업성취도가 가장 높았고, Matcher 유형은 주관적 행복감과 자아탄력성이 가장 높았다. Taker 유형은 주관적 행복감, 자아탄력성, 학업성취도 모두 세 유형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았고( $r=.511, p<.001$ ),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 $r=.215, p<.05$ ).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관적 행복감과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융합, 주관적 행복감, 자아탄력성, 학업성취도, Giver, Taker, Matche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of the subjective happiness, ego-resilience and academic achievement by type of giver, taker, matcher of nursing students. First, in the result of the type of nursing students, the Taker(43.0%) was the largest, the Matcher (40.1%) was next, the Giver (16.9%) was the least. The mean score of subjective happiness, ego-resilience and academic achievement were 16.9, 94.1, 3.3,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personality type, the Giver reported the highest academic achievement. But the Taker reported the lowest subjective happiness, ego-resilience and academic achievement. There were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subjective happiness and ego-resilience( $r=.511, p<.001$ ), and ego-resilience and academic achievement ( $r=.215, p<.05$ ).

**Key Words** : Convergence, Subjective Happiness, Ego-resilience, Academic Achievement, Giver, Taker, Matcher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대학생은 대학생활 중에 엄격한 교과과정, 과중한

학습량, 10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해야 한다는 심리적 중압감 및 취업 등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1], 취업 후에는 질병으로 인해 예민해진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부담감과 병원

\*This study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s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2015. (snjc 2015-019)

\*Corresponding Author : Hye-Won Kim (hwkim@snjc.ac.kr)

Received February 28, 2017

Revised March 17, 2018

Accepted April 20, 2018

Published April 28, 2018

내 보건의료인과의 대인관계 어려움, 환자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에 대한 긴장감과 책임감, 환자의 간호 요구 증가에 따른 업무량 과다뿐만 아니라 기타 전산 시스템 관리와 기록 등과 관련된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는 다른 직종에 비해서도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간호대학생이 탐구하는 간호학문 안에서 인본주의적-이타주의적 가치체계는 배움을 통해 얻어지는 행복감과 자아의 확장 및 헌신에 대한 것이다[3]. 간호대학생은 대학생활 중에 미래의 대상자에게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마음 자세를 수양해 가야하는데,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사색하고 행복감에 대한 가치를 중요시 여기며 이를 창조해내는 인성적 자질을 갖추는 것이 대학생활 뿐 아니라 취업 후 적응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4]. 행복한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정의하며 감사함을 느끼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몰입한다[5]. 또한 다양한 스트레스에 강하고, 즐겁게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직무에 대한 만족이 높을 뿐만 아니라[6] 한 사람의 행복한 감정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될 만큼 전염성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5]. 행복한 감정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통해서만 생성되는 것은 아니며 어떠한 사건을 긍정적·낙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Compton은 주관적 행복감을 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측면의 주관적 안녕감이라고 하였다[7]. 또한 긍정적인 정서가 개인의 행동에 직접적인 강화로 작용하므로, 행동의 결과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긍정적 정서는 부정적인 정서의 경험으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7]. 이와 관련하여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개념이 자아탄력성이다.

자아탄력성은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 및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연하게 반응하는 성향을 의미하며 자아탄력성이 높은 학생들은 외적인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도전적인 과제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학교생활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에도 유연하게 반응하고 부정적 정서를 다스릴 수 있는 조절 능력이 높다[8]. 이로 인해 학업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덜 불안해하고 자신감 있게 학교생활에 참여하며[8], 행복감과 학업성취도가 높고[9,10], 대인관계 형성에서도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 또한, 자아탄력성이 발달과정에서

변화되고 습득되어지는 역동적인 과정임을 고려해볼 때 [12], 대학생활 및 취업 상황에서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높은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과업을 수행해야하는 간호대학생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행복감, 자아탄력성을 알아보고 다른 변수들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대학생은 예비간호사로서 돌봄을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인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성적 자질을 확인할 수 있는 유형으로 개인마다 추구하는 호혜의 원칙이 다르다는 것을 기반으로 Giver, Taker, Matcher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13,14]. 이는 각각의 사람에 따라 주는 양과 받는 양에 대해 생각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통해 유형을 나누는 것이다. Giver는 상호관계에서 무게의 추를 상대방 쪽에 두고 자기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기를 좋아하는 유형이고, Taker는 자신이 준 것보다 더 많이 받기를 바라는 유형이며 Matcher는 손해와 이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유형이다. 현대사회에서는 다학제로 구성된 팀 중심의 업무 시스템과 기술이 급변하면서 지식이나 정보를 공유하고 타인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기꺼이 맡는 등의 타인을 돕는 역할을 하는 Giver의 이타적인 행동양식이 긍정적 효과를 보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Giver의 사회적 경쟁력은 상승하고 있다. 벨기에 의대생 6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하거나 남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미리 생각하는 Giver 유형의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의료진과 협력하고 환자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행복감이 높고 좋은 학업 성취도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15].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Giver, Taker, Matcher 유형을 확인하고 주관적 행복감, 자아탄력성,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Giver, Taker, Matcher 유형을 확인하고 주관적 행복감, 자아탄력성,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지역에 소재한 일개 대학 간호학과 2학년 재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이다.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 98%로 G\*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한 표본수는 138명이었으며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165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고, 이중 불성실한 자료 23부를 제외한 142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 2.3 연구 도구

### 2.3.1 Giver, Taker, Matcher 유형

대학생의 Giver, Taker, Matcher의 유형을 확인하기 위하여 www.giveandtake.com에 접속하여 Adam M. Grant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유형 검사로 측정하였다[13]. 본 검사지는 총 15문항으로 약 5~1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 2.3.2 주관적 행복감

주관적 행복감은 Lyubomirsky와 Lepper가 개발한 Subjective Happiness Scale을 김인자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16,17]. 이 도구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7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4점에서 최고 28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원도구의 경우 Cronbach's  $\alpha=.86$ 이었고[16],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6$ 이었다.

### 2.3.3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Klohnen의 자기보고식 자아탄력성 척도를 박현진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였다[18,19]. 본 도구는 자신감, 대인관계 효능감, 낙관적 태도, 감정통제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고, 낙관적 태도 10문항, 대인관계 효능성, 8문항, 자신감 9문항, 감정통제 2문항으로 총 29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박현진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8$ 이었고[19],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9$ 이었다.

### 2.3.4 학업성취도

대학생의 학업 성취도는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대학입학 이후의 성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2학

년 2학기 학생으로 3개 학기 성적 평점평균을 대학생 학업성취도로 측정하였다.

## 2.4 자료 수집

자료 수집기간은 2015년 9월 2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이었다. 간호대학생의 Giver, Taker, Matcher 유형은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평가된 결과로 파악하였고, 일반적 특성, 주관적 행복감, 자아탄력성, 학업성취도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자료수집에 소요된 시간은 약 10-15분이었다.

## 2.5 윤리적 고려

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내용,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고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라도 어떠한 불이익 없이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렸으며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과 비밀유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모두 삭제하였고 잠금장치에 보관하고 연구자만이 접근하였으며 논문 게재 후 폐기할 예정이다.

## 2.6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Giver, Taker, Matcher 유형은 빈도와 백분율로, 유형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 자아탄력성, 학업성취도는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주관적 행복감, 자아탄력성, 학업성취도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은 총 142명으로 성별은 모두 여자였으며 연령 분포는 19세에서 43세 사이로 평균 연령은 21.4세였다. Table 1 간호대학에 입학한 동기는 본인의 의사로 선택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전공과 실습에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42

Variables	Classification	Number (%) or M±SD
Gender	Male	0
	Female	142(100)
Age		21.4±3.7
Motivation for admission	Participants intention	62(43.7)
	Nearby advice	28(19.7)
	Match grades	14(9.9)
	Consider employment rate	38(26.8)
Personality	Introspective	26(18.3)
	Usually	89(62.7)
	Extrovert	27(19.0)
Major satisfaction	Very unsatisfied	2(1.4)
	Dissatisfaction	6(4.2)
	Usually	71(50.0)
	Satisfaction	49(34.5)
	Very satisfied	14(9.9)
Practice satisfaction	Very unsatisfied	2(1.4)
	Dissatisfaction	5(3.5)
	Usually	57(40.1)
	Satisfaction	59(41.5)
	Very satisfied	19(13.4)

3.2 Giver, Taker, Matcher 유형

전체 대상자를 Giver, Taker, Matcher 유형으로 구분한 결과, Giver는 24명(16.9%), Taker는 61명(43.0%), Matcher는 57명(40.1%)로 Taker 유형이 가장 많았다. Table 2

Table 2. The type of participants: Giver, Taker, Matcher

N=142

Variables	Classification	Number (%)
Type	Giver	24(16.9)
	Taker	61(43.0)
	Matcher	57(40.1)

3.3 주관적 행복감, 자아탄력성, 학업성취도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은 평균 16.9점이었고, 자아탄력성은 평균 94.1점, 학업성취도는 평균 3.3점으로 나타났다. Table 3

Table 3. Subjective Happiness, Ego-resilience and Academic Achievement of participants

N=142

Variables	Range	M±SD
Subjective Happiness	4.0-24.0	16.9±3.4
Ego-resilience	53.0-134.0	94.1±15.2
Academic Achievement	1.9-4.2	3.3±.5

3.4 Giver, Taker, Matcher 유형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 자아탄력성, 학업성취도

대상자 중 Giver 유형은 학업성취도가 가장 높았고 (F=11.57, p<.001), Matcher 유형은 주관적 행복감 (F=1.32, p=.271)과 자아탄력성(F=3.45, p=.034)이 가장 높았다. Table 4 Taker 유형은 주관적 행복감, 자아탄력성, 학업성취도 모두 세 유형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Table 4. Subjective Happiness, Ego-resilience and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the type of participants: Giver, Taker, Matcher

N=142

Variables	Giver M±SD	Taker M±SD	Matcher M±SD	F(p)
Subjective Happiness	17.1±3.1	16.4±4.1	17.4±2.5	1.32(.271)
Ego-resilience	92.5±8.8	90.9±14.5	98.0±17.2	3.45(.034)*
Academic Achievement	3.5±.5	3.0±.5	3.4±.4	11.57(<.001)

\* p<.05; \*\* p<.001

3.5 주관적 행복감, 자아탄력성,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았고(r=.511, p<.001),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r=.215, p<.05) Table 5

Table 5.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Subjective Happiness	Ego-resilience	Academic Achievement
Subjective Happiness	1		
Ego-resilience	.511(<.001)**	1	
Academic Achievement	.004(.961)	.215(.042)*	1

\* p<.05; \*\* p<.00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자아탄력성,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간호대학생의 Giver, Taker, Matcher 유형의 분포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관적 행복감, 자아탄력성,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와 Giver, Taker, Matcher 유형의 특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은 28점 만점에 평균 16.9점이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연구보다 낮았는데[20], 아마도 대상자의 성별과 학년의 차이에서 기인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 대상자가 여자인데 비해 선행연구의 대상은 남자였다. 여자가 남자보다 더욱 정서에 가치를 높게 두며 남자들보다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주며[21]. 남자 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이 20.3점으로 여자 대학생의 19.0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연구와 같은 결과라 사료된다[22]. 둘째, 본 연구 대상자는 2학년 학생이었던 반면 선행연구의 대상은 1~4학년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였다. 2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주관적 행복감이 가장 낮고, 다중회귀분석 결과, 2학년인 경우 주관적 행복감에 역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해준다[22].

본 연구 결과 자아탄력성 하위요인별 점수의 순위는 낙관적 태도, 자신감, 감정통제, 대인관계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와 유사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23]. 이는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낙관적 태도, 자신감과 같은 성격 요소가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성격이 외향적인 경우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나 이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한 본인의 의사로 간호대학에 입학한 경우와 전공 및 실습 만족도가 높은 경우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생활의 만족과 성취경험이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자신감, 대인관계의 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주관적 행복감, 자아탄력성,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아탄력성은 주관적 행복감 및 학업성취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했다[9,10]. 자아탄력성이 높은 경우, 불안, 우울,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 정도가 낮으며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주관적 행복감이 높을 수 있다[24]. 자아탄력성이 높은 학생은 심사숙고하고 경쟁력이 있으며 활기차고 이성적이고 협동적인 특징이 있으므로[25], 간호학과에서 많이 노출되는 다양한 임상상황과 사례기반학습, 문제해결학습, 팀기반학습, 협동학습 등의 능동적 교수학습방법을 수월하게 성취하면서 학업성취도가 함께 향상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을 Giver, Taker, Matcher 유

형으로 구분한 결과, Giver는 16.9%, Taker는 43.0%, Matcher는 40.1%로 Taker 유형이 가장 많았다. 이는 연구 대상자가 오랜 시간동안 입시경쟁 속에서 학업생활을 해왔고, 대학에 입학해서도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학점과 관련된 치열한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Taker의 성향을 갖게 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연구대상자 중 Giver 유형이 학업성취도가 가장 높았고, Matcher 유형은 주관적 행복감과 자아탄력성이 가장 높았으며 Taker 유형은 주관적 행복감, 자아탄력성, 학업성취도 모두 세 유형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Giver는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자기가 상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있게 살피는 성향이기에 때문에 대상자가 타인돕기, 조언하기, 공적 나누기, 남을 위해 인간관계 맺기 등과 같이 타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가에 초점을 맞춰 Giver의 유형으로 판단한다[13]. 이러한 Giver의 특성을 가진 간호대학생들은 수업에서 팀워크를 발휘하고 교수들과 효율적으로 협력하며 사례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학습의 성취도가 높았을 것이며 의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유사한 결과를 보고한 연구가 이를 뒷받침해준다[15]. 또한, Giver의 배움에 따르는 행복은 오랜 시간 즐겁게 노력하도록 해주고 더 어려운 목표를 세우고도 문제 앞에서 빠르고 유연하며 폭넓게 생각하도록 이끌며[26] 행복을 느끼는 의료진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한다는[27] 선행 연구가 예비간호사로서 돌봄을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인성 및 실력을 갖추어야 하는 간호대학생에게 다양한 시사점을 주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자아탄력성, 학업성취도에 대해 대상자 수와 범위를 확대하여 반복 연구할 것과 Giver, Taker, Matcher 유형을 확인하고 영향 요인에 대해 종단적 연구를 할 것을 제안한다.

## REFERENCES

- [1] M. H. Jung & M. A. Sin.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 esteem and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2(2), 170-177.
- [2] R. M. Steers & J. S. Black. (1994). *Organizational behavior*, 5th ed., New York: Harper Collins College

- Publishers.
- [3] J. Watson. (1985). *Nursing: human science and human care. A theory of nursing*. Norwalk, Connecticut: Appleton-Century-Crofts.
- [4] G. H. Jo. (2011). Perception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toward Happiness: A Q-Methodological Approach.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2)*, 178-189.
- [5] G. Jo. (2011). *The Effects of 'Becoming Happy I' Program on Gratitude Disposition, Self-Esteem, Flow, and Subjective Happiness for Nursing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aegu.
- [6] D. Danner, D. Snowdon & W. Friesen. (2001). Positive emotions in early life and longevity: Findings from the nun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804-813.
- [7] W. C. Compton. (2005). *An introduction to positive psychology*. Belmont, CA: Thomson Wadsworth.
- [8] J. Block & J. H. Block.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13*, 39-101.
- [9] Y. H. Kim. (2010). The Relation of Daily Stress and Ego-resilience to the Happines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12)*, 287-307.
- [10] H. I. Jo & N. Y. Lee. (2010).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and ego-resiliency: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6)*, 1-20.
- [11] A. S. Masten. (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e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3)*, 227.
- [12] S. S. Luthar & D. Cicchetti.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s and social polici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4)*, 857-885.
- [13] A. M. Grant. (2014). *Give and Take: Why Helping Others Drives Our Success*. New York: Penguin books.
- [14] Sonja Utz, Nicole Muscanell & Anja S. Göritz. (2014). Give, match, or take: A new personality construct predicts resource and information shar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70*, 11-16.
- [15] L. Filip, O. Deniz & D. Stephan. (2009). Personality scale validities increase throughout medical school.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4(6)*, 1514-1535.
- [16] S. Lyubomirsky & H. S. Lepper. (1999).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46*, 137-155.
- [17] I. J. Kim. (2006). *Positive Psychology*. Seoul: Moolpure.
- [18] E. C. Klohnen. (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5)*, 1067-1079.
- [19] H. J. Park. (1996). *Stress, coping and depression according to Ego-resilience*. Master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20] J. H. Park & G. Jo. (2016). Predictors of subjective happiness for mal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7(2)*, 511-522.
- [21] J. W. Hwang. & G. H. Kim.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Orientations to Happiness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University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0(1)*, 57-71.
- [22] S. H. Lee, B. R. Jung, & S. H. Kim. (2015). Influence on Subjective Happiness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Society of Public Health Nursing, 29(1)*. 115-126.
- [23] D. J. Kim. (2013).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elf-efficacy on Department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 Master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24] M. M. Tugade & B. L. Fredrickson. (2004). Resilient individuals use positive emotions to bounce back from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 320-333.
- [25] T. D. Letzring, J. Block & D. C. Funder (2004).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generalization of self-report scales based on personality descriptions from acquaintances, clinicians, and the self.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9*, 395-422.
- [26] B. Sigal & G. Donald. (2007). Why does affect matter in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Perspectives, 21(1)*, 36-59.
- [27] E. Carlos, I. Alice & Y. Mark. (1997). Positive affect facilitates integration of information and decreases anchoring in reasoning among physician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72(1)*, 117-135.

한 수 정(Han, Su Jeong)

[정회원]



- 200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간호학 박사)
- 1997년 2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 간호교육
- E-Mail : sjhan@konyang.ac.kr

김 혜 원(Kim, Hye Won)

[정회원]



- 2012년 2월 : 서울대학교(간호학 박사)
- 2014년 8월 ~ 현재 : 서울여자간호대학교 교수
- 관심분야 : 기본간호, 간호교육
- E-Mail : hwkim@snjc.ac.kr